



유대근 / 정회원, (주)유용준 건축사사무소  
by You, Dae-geun, KIRA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및 건축도시대학원 공학석사
-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겸임교수
- 건축시공기술사, 서울시 강서구 건축심의위원

# 디자인? 디자인!

## Design? Design!

1988년 온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서울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알렸던 잠실벌에서 20년 만에 다시 올림픽이 열렸다. 2010년 세계 디자인수도로 선정된 서울시가 준비한 '서울디자인 올림픽 2008'은 공공, 산업, 패션,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디자인 종합 축제로 10월 10일부터 31까지 21일간 진행되었다.

'Design is AIR'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디자인이 우리의 삶 속을 흐르는 생명과 창조의 에너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소통과 융합, 참여와 경험을 중시하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목표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고 한다.

디자인 컨퍼런스,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페스티벌의 4개 장르로 대별된 행사는 많은 디자인 요소와 언어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 되었다. 특히 '천만 시민 한마음 프로젝트'와 '디자인과 놀다'라는 장르로 엮어진 여러 가지 행사들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주목 할만 했다. 놀이와 체험 행사를 통해 디자인이 공기와 같이 주변에서 살아 숨 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높여 디자이너와 일반인의 거리를 좁히고 디자인 요소들이 생활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그 외에도 주제전인 'Design is AIR'와 '서울 디자인 나무' '서울시 디자인 비전' 등의 다양한 전시회와 '서울 디자인 컨퍼런스'를 비롯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흥미로운 행사들을 마련하였다. 대부분의 행사가 무료 관람이었고 일반인 및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8시, 주말 10시 까지 행사장을 개방한 점은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만, '자하 하디드 특별전'은 유료전시 행사이고 방송이나 지면에 홍보된 것에 비해 전시장의 규모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다. 단지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몇 작품을 모아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총체적 이동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충실한 전시내용이 담길 수 있어야 했다.

### 그럼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이란 의장(意匠) · 도안을 말하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 · 표현하다 · 성취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디자인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디자인이든지 실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요소(造形要素)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이다.<sup>1)</sup>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에 의해 다양한 물건들을 값싸게 접하게 된 사람들에게 디자인은 미술적 요소를 제품에 응용하는

1) 두산백과사전

이제 건축사는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보다 모두를 위한 건축의 공공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축주의 이윤과 건축사의 작품에만 집중하기보다 공공 디자인, 환경 디자인 측면의 시각을 넓혀  
 멋진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디자인! 이제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픽토리얼 디자인(pictorial design) 이상으로는 적용되지 못했고 과도한 디자인이나 특이한 형태는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보다 적은 공정으로 단순화한 기능적인 물품을 만들고 낮은 가격으로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의 질' 보다는 '물량의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거 유형 현실에서도 나타났다. 6.25 전쟁 이후 도시 인구 집중화에 따라 나타난 주거 유형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같은 재료들과 같은 형태들로 도시를 채워 나갔고 급기야 성냥갑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거공간이 전국 주거공간을 60% 이상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주택 공급비율의 증대와 도시 주거공간 환경의 질은 반비례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소위 중산층으로 불리우는 대부분의 도시민에게 환경 디자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일방적인 '규제'로 인식되었고 아파트 현관문 밖의 환경은 '모두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관심 밖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한 경험이나 방송매체에서 보는 선진국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민들의 미의식, 환경에 대한 노력들을 접할 때마다 부러움과 더불어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게 된다.

물론 시각디자인(visual design)이나 제품디자인(product design)과 같이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것(과학)과 예술적인 것이 조화된 실체로서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디자인들은 공업화, 대량생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달되어 왔지만 환경디자인(environment design) 분야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 세계디자인 수도 선정은 국내에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하겠다.

환경에 대한 미의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지며 모두가 디자인을 말하는 이 시기에 건축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역사 이래로 건축사는 디자인의 선구자요 생활과 밀접한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었다. 뛰어난 구조와 아름다운 비례 그리고 기능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공간을 요소로 하는 건축물은 그 시대를 대변하는 디자인의 총합체이며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인 것이다. 건축사는 스스로의 노력과 우수한 장인들의 손을 빌리며 오랜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디자인의 선도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이제는 함께하는 디자인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이제 건축사는 자신이 설계하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보다 모두를 위한 건축의 공공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건축주의 이윤과 건축사의 작품에만 집중하기보다 공공 디자인, 환경 디자인 측면의 시각을 넓혀 멋진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디자인! 이제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